

“나눔의 뜻,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길”

김왕석 강진군 농기센터 주무관, 헌혈증 100매 기부 22년간 꾸준한 봉사활동...“2주마다 헌혈 계속할 것”

김왕석(40·사진 오른쪽)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이 21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 100매를 기부했다.

김 주무관은 지난 11주 동안 지정헌혈해 왔던 백혈병 환자가 최근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혈병·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

김 주무관은 “환자분이 건강히 퇴원하길 바랐는데, 비보를 듣게 돼 마음 아프다”며 “헌혈증이 백혈병·혈액암 등 수술이 절실한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경기도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지정 헌혈 요청을 받았다. 백혈병을 앓는 어머니가 혈소판이 부족해 헌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였다. 생면부지 낯선 사람이었지만, 평소 헌혈·봉사를

주기적으로 해 왔던 김 주무관은 기꺼이 피를 내줬다.

김 주무관은 지난 22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나눔전사’로, 최근에는 광주혈액원,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도담도담 등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활동이 선한 영향력이 돼 나눔이 퍼져나가길 원한다는 그는 이날 아들(사진 왼쪽)과 함께 기부 현장에 왔다. “환자들도 결국 누군가의 자식이요 부모다. 나눔의 뜻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당장 지정헌혈은 할 수 없더라도, 2주에 한번씩 헌혈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제 작은 도움으로 아픈 이들에게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박계하 몽 에뚜와르 단청제빵소 대표 탈북자녀 돕기



몽 에뚜와르 단청제빵소 박계하(왼쪽) 대표가 최근 북한이탈주민자녀를 돕기 위한 성금 6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지스트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산)가 지난 19일 지스트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주요 보직자 및 우수 학위수여자, 졸업생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지스트 제공)

자넷 리, 시한부 암 투병



포켓볼 원조 섹시스타로 인기를 누렸던 ‘검은 독거미’ 자넷 리(50·한국명 이진희)가 난소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9일(한국시간) 자넷 리가 최근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자넷 리가 최대 1~2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자넷 리는 “당구대에 썼을 때와 똑같은 걸이로 이 싸움과 맞서겠다”며 “세 딸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자넷 리는 늘씬한 키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지은 채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검은 독거미’란 애칭을 얻었다. 1990년대 중후반 세계 1위를 석권했던 자넷 리는 국내외 대회에서 30차례가 넘는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여자 당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김유일 호흡기내과 교수) 주축로 시행됐다.

(전남대병원 제공)

인사

- ◆전남도
 - ◇승진 4급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이호범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 ◇승진 5급 ▲전략산업국 연구바이오산업과 김대식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박석준
 -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최환 ▲보건환경연구원 김양기
- ◆소방청
 - ◇소방정 승진 ▲전남도 전출 최인석
 - ◇소방정 전입·전출 ▲광주시 소방학교장 구동욱
- ◆한국농어촌공사
 - ◇개방형직위 임용 ▲어촌수산처장 김자영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추천 뉴스	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불편해도 괜찮아	00 달이 뜨는 강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유 별의여신 50 뽀뽀 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 2021년 그린뉴딜 정책 전망과 과제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나만의 살던 고향은 55 호모 미디어쿠스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③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④	00 사사건건	00 특선 다큐 푸른 바다의 꿈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련일이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지! 따따따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⑩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0 특집 100분토론	0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⑫	40 사랑의 가족(재)	00 수미산장	40 MBC 네트워크특선 (바다 한 상 3부(목포M))	35 닥터 365 40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잭	13:00 EBS 다큐프라임	19: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댕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불케이노 대탐험-필리핀 마운 화산)
09:00 뽕뽕뽕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앤 문	(은둔의 아지트 1부 수류골 그 사나이)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22:4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11일 辛丑)

<p>36년생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48년생 교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진다. 60년생 취약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라. 72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84년생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96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운의 숫자: 11, 81</p>	<p>42년생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단속이 절실하다. 54년생 시세가 흥흥하니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 있다. 66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78년생 약간의 신경 쓴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다. 90년생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생기면서 바빠질 것이다. 02년생 구대의연함에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00, 84</p>
<p>37년생 수중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출이 될 수 있다. 49년생 패도난만한 후에 명확하게 처리 해야만 한다. 61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길조를 띠게 되나. 73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85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한 충격을 받게 된다. 97년생 사세부득이,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행운의 숫자: 25, 56</p>	<p>43년생 권리는 평생시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5년생 예상치 못한 번민이 휩싸일 수도 있으나. 67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조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91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03년생 정후를 무시하거나 연기한다면 불행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29, 53</p>
<p>38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50년생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유도해 나가라. 62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74년생 이대로 가다가는 기반이 흔들리게 흔들리겠다. 86년생 발전의 물꼬를 트는 길사가 발생하리라. 98년생 육식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01, 88</p>	<p>32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맞보겠다. 44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56년생 부자연스럽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6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80년생 성장과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92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12, 87</p>
<p>39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51년생 원래부터 타고난 몫이 다르니 상대를 의식할 필요 없다. 63년생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75년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87년생 역지사지 해낸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 99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38, 91</p>	<p>33년생 누락이나 중복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45년생 더불어서 행한다면 배가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57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69년생 한 곳으로 집중 되어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81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93년생 오늘 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행운의 숫자: 37, 57</p>
<p>40년생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64년생 쉽게 정답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76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단성 있게 전환하라. 88년생 목표에 이르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00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41, 75</p>	<p>34년생 앞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모순이나라. 46년생 구대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58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다. 70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82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된다. 94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행운을 유지한다. 행운의 숫자: 22, 63</p>
<p>41년생 점검해보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53년생 겉모습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65년생 운운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77년생 절대로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나. 89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현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01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행운의 숫자: 24, 85</p>	<p>35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니 신중 하라. 47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나라. 71년생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을 이끌 것이다. 83년생 모아서 는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95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30, 70</p>